

청년고용(III):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변동의 영향

- 1970-2017년 기간 중 연령집단별 취업자 수 규모와 증감양상은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청년고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연령집단별 취업자 규모의 변동은 인구변화와 경기변동의 기여분으로 분해할 수 있으며, 25-29세 연령집단은 경기변동 요인이, 15-19세 연령집단은 인구변화 요인이 고용변화를 설명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자 수나 그 증감 규모와 같은 지표를 토대로 청년 집단의 고용상황을 진단할 경우 인구요인의 기여율만큼 현실을 오판할 가능성이 발생
- 정확한 청년고용 현황 파악은 사실충실성(factfulness)을 제고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설계·시행의 기초가 될 수 있음.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주
이 글은 “정지운 외(2018), 「인구 절벽과 청년고용」,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정리하여 작성함.

각주
1) 송민기(2019), 「취업자 증감 지표와 고용률 지표의 '사실 충실성' 문제」, 한국금융연구원.

연령집단별 취업자 규모의 변동은 인구변화와 경기변동의 기여분으로 분해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정확한 청년고용 현황 파악은 사실충실성(factfulness)을 제고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설계·시행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청년고용(Ⅰ)에서는 경기변동과 청년의 취업과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간 이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고용(Ⅱ)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확장하여 청년층 노동공급의 경기순응성이 국내 노동시장에 국한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실임을 확인한 바 있음.
-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주로 청년집단의 취업자 수 변동이나 증감 규모 등에 기초하여 정책대안이 실행되고 있는 실정임.
- 다만, 송민기(2019)¹⁾는 ‘연령별 취업자 증감 지표’가 연령프레임(구간)을 고정시키고 집계하기 때문에, 해당 연령프레임에 유입·유출되는 연령층 간의 규모 차이에 의해 실제 취업자 증감으로부터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
- 연령프레임의 유입·유출은 결국 인구구조 변화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정확한 청년고용 현황에 대한 이해와 정책수립을 위해 청년 취업자 규모 변동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기여도를 산출·검토할 필요가 있음.

분석 자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1972-2017년 원자료의 15-29세 연령집단의 경제활동상태 정보 및 「장래인구추계」 1977-2017년 15-29세 연령집단의 인구 정보를 활용



각주

2) 본고에서 활용한 분해방법 (decomposition method)은 취업자 수 변화의 요인 및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다만, 어떤 이유로 그러한 현상이 도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되며,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음.

분석 방법: ① 연령집단별 취업자 수와 그 증감을 산출, ② 변이 할당 분석(shift share analysis)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연령집단별(g) 고용률 산식($h_{gt} = E_{gt}/N_{gt}$)에 포함된 변수인 연령집단 취업자(E_{gt}), 연령집단별 인구(N_{gt})의 연도에 따른 구성변화(Δt)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 요인들이 취업자 수 변화에 미치는 크기를 분해·식별²⁾

- 연도별(t)·집단별(g) 고용률(h_{gt})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h_{gt} = E_{gt} / N_{gt}$$

- 여기서, E_{gt} : 연령집단(g)의 취업자 수

N_{gt} : 연령집단(g)의 인구 수

- 위 정의를 재정리하면, 취업자(E_{gt})는 N_{gt} 와 h_{gt} 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t 기의 취업자 수 변화 $E_{gt} - E_{gt-1}$ 는 다음과 같이 분해가 가능함.

$$\begin{aligned} E_{gt} - E_{gt-1} &= h_{gt} \times N_{gt} - h_{gt-1} \times N_{gt-1} \\ &= h_{gt} \times N_{gt} - (h_{gt} \times N_{gt-1}) + (h_{gt} \times N_{gt-1}) - h_{gt-1} \times N_{gt-1} \\ &= h_{gt} \times (N_{gt} - N_{gt-1}) + (h_{gt} - h_{gt-1}) \times N_{gt-1} \end{aligned} \quad (\text{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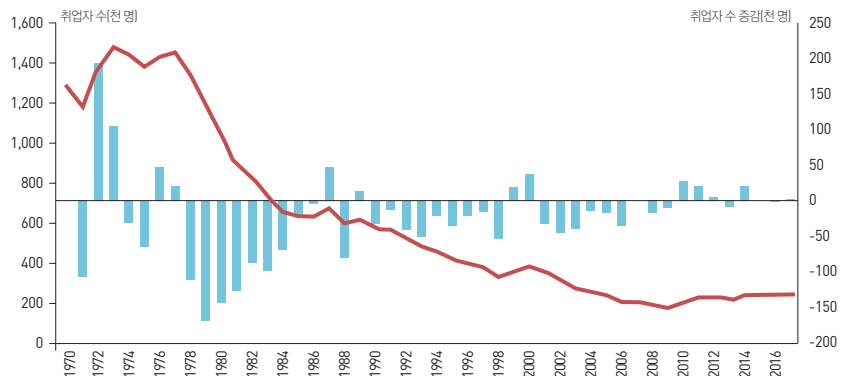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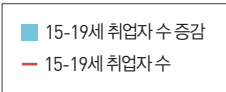
- (식 1)의 첫 번째 부분은 '주어진 고용률 하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업자 수의 변화 기여'로 정의할 수 있음.

- (식 1)의 두 번째 부분은 '주어진 인구 하에서 고용률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업자 수의 변화 기여'로 정의할 수 있음.

02 연령집단별 취업자 규모와 증감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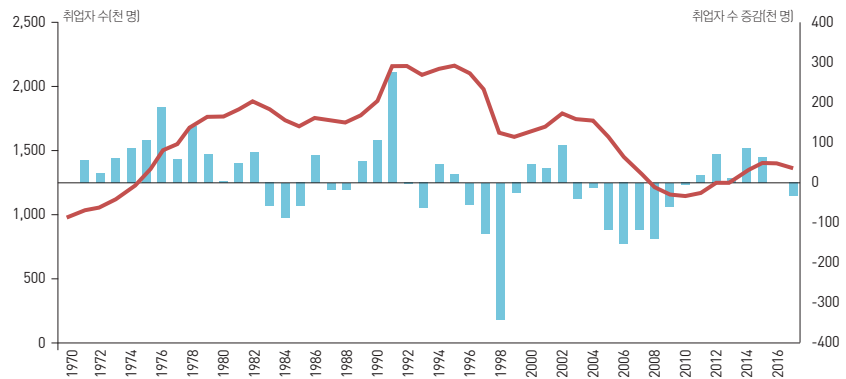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970-2017년 기간 중 연령집단별 취업자 수 규모와 증감 양상은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청년고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15-19세 연령집단의 취업자 수는 197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취업자 수 증감 폭 축소(그림 1)
- 20-24세 연령집단의 취업자 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는 양상이고, 취업자 수 증감은 201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 다시 감소(그림 2)
- 25-29세 연령집단의 취업자 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는 양상이나, 2016년 이후 증가(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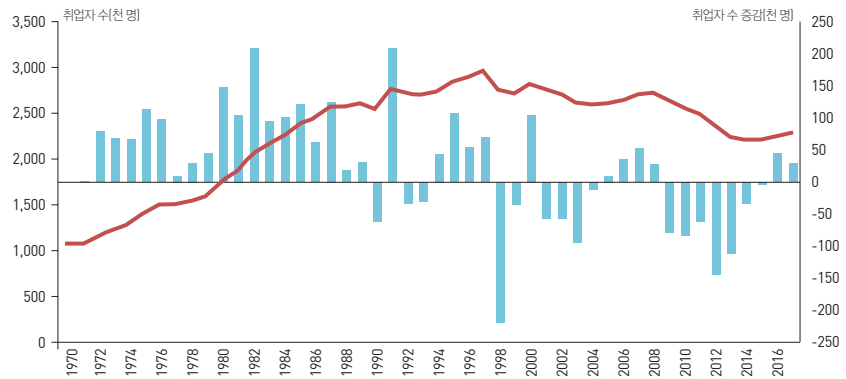
[그림 1] 15-19세 연령집단의 취업자 규모와 증감

■ 20-24세 취업자 수 증감
 — 20-24세 취업자 수



[그림 2] 20-24세 연령집단의 취업자 규모와 증감

■ 25-29세 취업자 수 증감
 — 25-29세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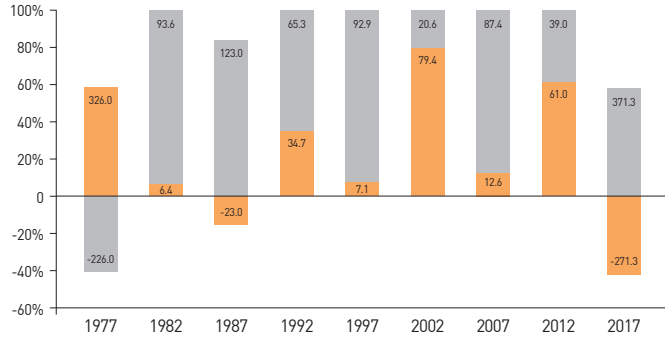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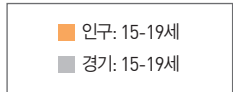
[그림 3] 25-29세 연령집단의 취업자 규모와 증감

03 청년의 고용사정은 얼마나 악화된 것일까?: 연령집단별 취업자 수 분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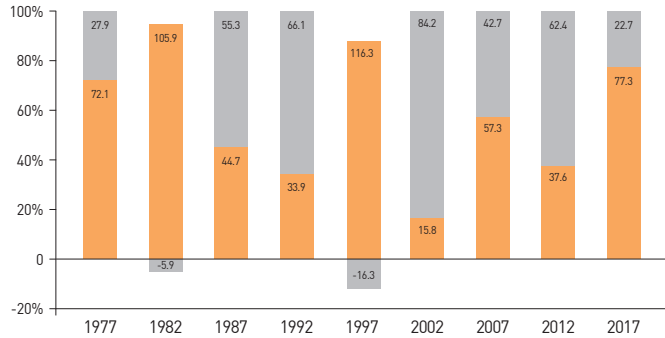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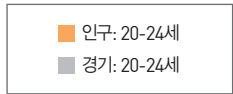
| 3개 연령집단 비교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경기변동 요인이, 연령이 낮을수록 인구변화 요인이 고용변화를 설명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5-19세 연령집단의 취업자 수의 변화는 대체로 경기변동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데, 2000년 이후 인구변화 요인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4).
- 20-24세 연령집단의 경우는 취업자 수의 변화에 대한 인구변화에 의한 기여는 분석기간 중 W자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5).
- 25-29세 연령집단의 취업자 수의 변화는 대체로 인구변화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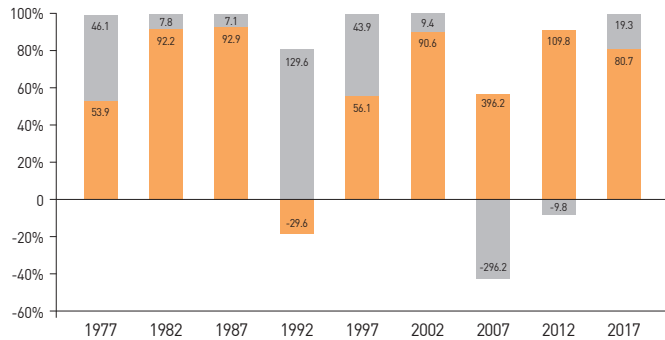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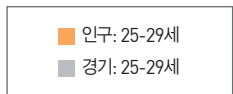
| 즉,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자 수나 그 증감 규모와 같은 지표를 토대로 청년집단의 고용상황을 진단할 경우 인구요인의 기여율만큼 현실을 오판할 가능성이 발생



[그림 4] 15-19세 연령집단의 취업자 수 변동 요인 분해



[그림 5] 20-24세 연령집단의 취업자 수 변동 요인 분해



[그림 6] 25-29세 연령집단의 취업자 수 변동 요인 분해

04 시사점

- 본고는 인구구조 변화가 청년 취업자 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이로써 청년고용 정책의 근거가 되는 취업자 증감과 같은 지표는 사실충실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 취업자 수 또는 규모 변화는 청년의 연령집단별로 상이하나, 20-29세 연령집단의 경우 그 영향이 적지 않은 수준임.
- 취업자 규모나 증감 지표의 현실과의 괴리는 청년고용 현황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나아가 청년고용 정책 수립의 성과를 저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 최근 '자료에 기반한 정책(data based policy)'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고용지표들을 재검토 하고 사실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정 지 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